

여야, 온열환자 속출한 '새만금 잼버리' 안전대책 촉구

건강·안전 적극적 조치 주문

한 총리, 군의관 파견 등 지시

정부, 행사 최소화 등 다각 대응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자, 여야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행사 최소화

와 군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여야는 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야영장 온열 질환자 속출로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부 측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현장 상황도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조직위를 넘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폭염에 체온 관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열음,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즉각 조치하는 것은 물론, 폭염 지속 시 어떤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안심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현장 대응에 미흡한 게 아닌

가"라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제 와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라도 정부가 현장 상황을 챙기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추후에 어떤 경위였는지 또 책임소재는 그때 확인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책임 추궁보다는 추가적인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운영과 관련,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국방부에는 잼버리대회 현장에 그늘막과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공병대를 지원하고,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관을 신속하게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4일까지 새만금 잼버리에 의료인력 40여명을 급파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는 세계 158개국에서 온 청소년 4만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낮 기온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해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명식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8명이며 두통, 복통, 근육계통 손상 등의 유형을 포함하면 개명식 관련 환자는 모두 139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명식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 핫라인 개설 협의”...캠프데이비드 회담서 논의할 듯

대통령실 “3국 공조 업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상호 간 핫라인 개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무실 책상에 앉아 전화 수화기만 들면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직통 라인(핫라인)을 열어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공동선언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라며 “정상 간 핫라인 개설도 거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우선 핫라인을 개설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특정 색깔이나 모양이 표시된 유선 전화기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핫라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채널로서 의미가 있다. 중국의 경제 제재 압박 등에 대한 대응 논의 채널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핵 공동 기획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에 승선하기 전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3국 정상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면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부터 이어오던 한미 간의 이 안보 협력의 한미일로 확장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한일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사실상 동맹에 버금가는 밀착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측의 희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정, 전국 경로당 냉방비 10만원씩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 6만8000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송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라며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천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아침에 기화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청취했다”며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방식은 향후 정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로당 방문에는 강대식·김병민 최고위원, 종로구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연합뉴스

국힘 10월부터 총선 대비 정기 당무감사

국민의힘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당협)를 대상으로 내년 총선 대비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도 정기 당협 당무감사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에 시작해 11월 말까지 마무리 예정이다.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원협의회가 대상이며, 취합한 사전 점검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감사가 실시된다.

당무감사위는 당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상세 평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5%...2주만에 1%p 올라

NBS...국힘 32%·민주 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이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9%),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

(12%)이 그 다음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32%였고 민주당은 23%에서 변함이 없었다.

다만 지난달 31일부터 이슈가 된 김 위원장의 ‘노인 폼파’ 발언 논란으로 70세 이상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17%에서 6%p 하락한 1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
- ☑ 워크넷 유효 구직자

제외대상

- ☑ 재직중인 자
- ☑ 시험 접수 후 미응시자
- ☑ 국민취업제도 등 타사업 참여자
- ☑ 제출서류 미충족자 등

사업기간

- ☑ 공고일(2023.2.8.)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경비(시험응시료) 지원
 - * 공고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함
- ☑ 1인 1회 5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지원

제출서류

-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에서 서식다운)
- ☑ 응시확인서(자격시험명, 응시료, 응시일자 표기필수)
-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접수방법

이메일 : jnjob@naver.com
 방 문 :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1층)

문의 : 061-750-7700